

1

2025. 3. 9. 오후 1 시,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사도행전 Acts 9:1-9

제목: 예수를 만난 사람들(46). 사울, 열심히 주를
핍박하다

(표준새번역) 9:1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ESV) 9:1 But Saul, still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went
to the high priest

9:2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9:2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at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belonging to
the Way, men or women, he might bring them
bound to Jerusalem.

9: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9:3 Now as he went on his way, he approached Damascus, and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shone around him.

9:4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9:4 And falling to the ground, he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9: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9:5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9:6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9:6 But rise and enter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are to do."

9:7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 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9:7 The men who were traveling with him stood speechless, hearing the voice but seeing no one.

9: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9:8 Saul rose from the ground, and although his eyes were opened, he saw nothing. So they led him by the hand and brought him into Damascus.

9:9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9:9 And for three days he was without sight, and neither ate nor drank.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는 이런 약속을 들려 줍니다.

(표준새번역) 이사야 9:7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ESV) Isaiah 9:7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그 어머니의 그 딸처럼, 우리도 롬 12:11,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로고스와 레마를 아름다운 공통체로 만들어 갑니다.

(개정개역) 로마서 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ESV) Romans 12:11 Do not be slothful in zeal, be fervent in spirit, serve the Lord.

열정, 열심, 부지런함은 미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 특히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혼란을 크게 만들고, 어두움을 전파하는 나쁜 추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 이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 메시지

✓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행 7:58, 사울은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맡아 주었던 청년입니다.

(표준새번역) 사도행전 7:58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ESV) Acts 7:58 Then they cast him out of the city and stoned him. And the witnesses laid down their garment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행 8:1,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길 만큼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표준새번역) 사도행전 8:1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ESV) Acts 8:1 And Saul approved of his execution.

사울의 열심은 더 뜨거워집니다. 본문 1 절,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살기)까지 드러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표준새번역) 9:1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ESV) 9:1 But Saul, still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went to the high priest

2 절, 다메섹,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가는 공식 명령서를 받아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궁극적으로는 죽이려고 합니다.

9:2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9:2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at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belonging to the Way, men or women, he might bring them bound to Jerusalem.

3 절, 가던 길에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춥니다.

9: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9:3 Now as he went on his way, he approached Damascus, and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shone around him.

4 절, 땅에 엎어진 사울을 향해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9:4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9:4 And falling to the ground, he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5 절, 그 음성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9: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9:5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사울은 자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표준새번역) 갈라디아서 1:13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시다.

(ESV) Galatians 1:13 For you have heard of my former life in Judaism, how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violently and tried to destroy it.

14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쏟았지만,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된 겁니다.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퍼뜨릴 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땀과 수고와 힘이 결국 우리를 눈멀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8 절, 이 일로 사울은 육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9: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9:8 Saul rose from the ground, and although his eyes were opened, he saw nothing. So they led him by the hand and brought him into Damascus.

그래서 9 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만큼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9:9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9:9 And for three days he was without sight, and neither ate nor drank.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땀흘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계신다면, 삶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목표에, 여러분의
10년 뒤의 모습에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멈춰 서야
합니다.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Matthew 7:22 On that day many will say to me,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 many mighty works in your name?'

하나님과 상관 없이 (자기 성공 위해서, 자기 성취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 없이 교회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7:23 And then will I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lawlessness.'

이어지는 24 절부터 ‘반석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7: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7:24 "Everyone then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them will be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 하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4 절의 시작 부분)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후에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10:2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ESV) Romans 10:2 For I bear them witness that they have a zeal for God, but not according to knowledge.

로마서 10:3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니다.

Romans 10:3 For, being ignorant of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seeking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열심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4 절, 사울이 땅에 엎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9:4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9:4 And falling to the ground, he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5 절, 사울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9: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9:5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 곧, 자기를 핍박한 것이라고 꼭 짚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면, 예수님 속상하시다는 수준의 말을 넘어
 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추종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맞으면,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다치면 예수님이 아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25:35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ESV) Matthew 25:35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food,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

**25:36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25:36 I was naked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visited me,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me.'

**25:37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25:37 Then the righteous will answer him, saying,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drink?

25:38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25:38 And when did we see you a stranger and welcome you, or naked and clothe you?

25:39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25:39 And when did we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visit you?'

40 절에 임금 곧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25:40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Matthew 25:40 And the King will answer them, 'Truly, I say to you,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my brothers, you did it to me.'

예수님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고 계십니다. 그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예수 믿는 사람)를 예수님과 동일시 하십니다. 고전 12:27,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 팔, 다리, 손, 발 입니다. 우리가 곧 이 땅에 현존, 실존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표준새번역) 고린도전서 12: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ESV) 1 Corinthians 12: 27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아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 (옆 사람 보시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예수님이
아픕니다.

♥ (손 잡아주며) 이 사람을 도와 주면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없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 그 사람에게 주면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돕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신다는 말은
곧,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말해 줍니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십시오.

♥ 내가 다치면 예수님이 아픕니다.

♥ 내가 행복하면, 예수님이 행복합니다.

♥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무리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으로 교회 일하고, 섬김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힘없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려운 일을 당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교회 안에 마음을 다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시거든 “아하, 주님이 저기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을 돕고,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도와주고도 절대로 돌려 받을 일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존중하며 챙겨 주십시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새 길을 찾았듯이 우리도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우리 교회, 로고스, 레마를 열심히 사랑합시다.

→ **친교시간, 이런 대화 어떠세요?**

1.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2. 오늘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열심을 품게 하소서**
- **주께 하듯 돕고, 주께 드리듯 나누며, 주께 하듯 서로 섬기게 하소서**